

「三壯士」三字 試評

慶北大學校 金 得 晚

目 次	
I. 序論：問題設定의 背景 및 「三壯士」三字의 源流問題	2. 「三壯士」三字의 種類
II. 「三壯士」三字의 構成	III. 官의 「三壯士」三字觀
1. 「三壯士」三字의 由來	IV. 結論：「三壯士」三字의 眞僞問題에 대한 筆者의 見解

I. 序論：問題設定의 背景 및 「三壯士」三字의 源流問題

周知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三壯士」三字란 義兵의 精神이나 抗倭活動의 影響이 本格的으로 倡義正道하는네 偉大한 貢獻을 세운 晋州城 抗倭戰士之宗三人¹⁾을 말한다.

이들은 壬亂當時 侵略軍인 日本軍의 激戰計劃의 變遷에 있어서 큰 轉換期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當時 官의 崇仰은 물론 今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尊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²⁾

그런데 「三壯士」三字에 그 누구를 꼽아야 하는가의 「是非問題」에 대해 상당한 論難이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昨今의 原初의 文獻資料 및 論著를 통하여 불 때 活動地域範圍를 土臺로 하여 첫째로, 湖南方面 둘째로, 嶺南方面으로서 이들의 두 立場이 各各 그들의 後裔나 그들을 研究하는 諸賢들에 의하여 추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 그 眞僞問題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思料되나, 可及의이던 從來의 중요한 原初의 文獻資料 및 論著를 根據로 해서 「前期三壯士」三字에는 어느 立場이 「三壯士」三字의 基本性格에 接近할 수 있고, 「後期三壯士」三字에는 어느 立場이 「三壯士」三字의 基本性格에 接近할 수 있는나는 것을 추측하는 데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三壯士」三字에 대한 종래의 文獻이나 研究는 매우 複雜하나마, 이미 그 成果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三壯士」三字에 관한 그 代表的 既存研究는 다음과 같은 原初의 文獻資料와 論著가 있다.

1) 結論部分 參照, 本文 p.146.

2) 敵의 湖南侵略計劃이 完全히 挫折되어 湖南一境이 保全되었으니 그 功 또한 永遠히 靑史에 빛날 것이다. 文烈公健齋金先生實記碑文, 見於 蘆石樓三壯士史蹟文獻集, p.145.

鶴峰重刊集, 鶴峯年譜, 三壯士實記碑文, 慶尚南道誌, 三壯士序文, 三壯士詩識, 霧下集錄. 虎溪書院答通文, 龍蛇日記論考, 大笑軒年譜, 龍蛇日記跋文, 湖南節義錄, 大東詩選, 日休集, 輿地圖書, 烏城誌, 慶州崔氏文獻錄, 崔慶會謚狀, 三莊誌, 南原誌, 明湖集, 典故大方, 韓國故事大典, 韓國典考, 韓國人名大事典, 忠烈實錄, 牧民心書, 晉州市長三壯士祭祭文, 全圭泰論註,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郭忘憂堂記念事業會: 紅衣將軍郭忘憂堂(1958)

金時璞: 矗石樓中三壯士詩考證(1981)

金相朝: 晉州城의 三壯士는 그 누구이며 矗石樓誓死詩의 作者는 그 누구인가? (1982)

朴性植: 晉州城戰鬪의 三壯士攷(1983)

高亢錫: 晉州三壯士에 관한 小考(1983)

等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三壯士」三字의 基本性格이나 그 眞僞問題에 대한 解決은 아직 滿足하기 어려운 段階에 있지 않은가 한다. 현실적으로 旌忠壇에 의한 三壯祭는 每年 예외없이 諸忠臣義士의 忠魂과 義魂을 달래는 祭典이 있고, 다른 하나는 鶴峯 金誠一·大笑軒 趙宗道·松巖 李魯의 三壯士가 멋 멋하게 矗石樓 壇下에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每年 反復되는 질문이지만, 어느 「三壯士」三字가 眞正한 「三壯士」냐고 할 때 무엇을 根據로 確答을 할 것인가라는 매우 困難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모두가 순국의 참된 壯士·忠士·義士·烈士의 영전에 匹스러운 行狀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점을 留意하면서 「三壯士」三字의 限界性을 엄밀히 考察하고 그것을 收斂的으로 理解할 수 있도록 着手하려고 하지만 筆者自身도 疑懼心마저 앞선다. 可及의 史觀에 도움이 될 만한 論文을 쓰고자 하는 意欲은 限定이 없으나 서로 相反된 原初의인 史料와 筆者의 能力不足에서 오는 限界性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筆者自身도 여기서 큰 成果를 期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三壯士」三字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아울러 그 後裔 되시는 諸賢이나 이를 研究하시는 분은 보다 많은 叱責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三壯士」三字는 本是 晉州城 抗倭戰士之宗三人에 의한 「矗石樓中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라고 한 말을 導入한데 緣由함을 알 수 있다. 「三壯士」三字는 晉州城 抗倭戰鬪의 產物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晉州城 抗倭戰鬪의 커다란 貢獻은 우리에게 주어진 問題를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決定짓겠다는 一種의 「自主精神」, 또는 「自決意識」의 高揚을 지적해 볼 수 있겠으나 晉州城 抗倭戰鬪의 最大의 缺點은 作戰이 不實하다든가 事前對策이 결여되었다든가 兵力이 劣勢에 놓여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튼 作戰上의 意見對立만은 매우 激化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抗倭하는데 있어서 一定한 秩序는 커녕 壯士의 規律마저 없는 狀態였다는 點이다.³⁾

3) 晉州城戰鬪의 一次時의 戰蹟은 明若觀火의 勝利로 그 原因을 살펴 보면, 防守軍에 外援이 있

이런 缺點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彼此相互 倡義를 提言함으로써 「三壯士」三字의 稱頌아래 忠臣의 後裔가 되는 矜持를 받고자 하니, 自然 後人들의 懷疑가 그만큼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筆者가 參考한 「三壯士」三字에 관한 先人들의 見解에 納得할 수 없는 點이 꽤 많았다. 納得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세히 探究해 보는 것도 「三壯士」三字에 대한 理論的 研究活動의 嚆矢로 보고, 本 論文은 그것을 主題로 삼은 것이다. 「三壯士」三字의 晋州城 抗倭戰鬪에 있어서의 推戴變遷過程을 곧 本論文의 主題로 삼는다면, 本稿의 題目에서 「試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變遷過程의 意味를 筆者의 獨自의인 생각에서 評價해보고자 해서이다. 本稿는 겨우 「嘗試之論」에 그쳤을 따름이고, 따라서 앞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今後 많은 訂正과 補完을 해야 될 것으로 思料되며 이는 앞으로 恒常 關心을 버리지 않고 考究해 볼 생각이다.

II. 「三壯士」三字의 構成

「三壯士」三字의 是非問題에 대해 積極的인 價値가 될 만한 根本資料를 여러 觀點에서 分類할 수 있다.⁴⁾

그러나 本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晋州城 抗倭戰鬪의 產物인 「축적루의 세 장사들, 잔을 들고 웃으며 긴 강물을 가리키노라. 긴 강물 흘러흘러 물결이 아니 따르며, 혼인들 어찌 죽으리요」라는 瀛石樓 三壯士詩를 背景으로 하는 原初的 文獻史料에서 導出해 낸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그 構成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三壯士」三字의 由來

牧民心書에 의하면 :

「金千鎰·崔慶會·黃進等, 臨死作詩, 曰瀛石樓下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萬古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⁵⁾

- 있다는 것이 其一이고, 防守準備가 周到했고 綿密하였다는 것이 其二이다. 그러나 晋州城戰鬪의 二次時의 敗北原因은 彼我的 兵力의 差가 懸隔한 것이 其一이요, 我方에서는 外部援兵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其二요, 敵에 대한 情報判斷이 安易하였고, 上下左右간의 協同연계가 缺如되었다는 것이 其三이다. 壬辰戰亂史, 金炯錫, 見於瀛石樓三壯士史蹟文獻集, p. 124, 142.
- 4) 朴性植氏에 의하면 「地域活動範圍 및 이에 따른 여러 家門의 論爭에 따라 複雜한 樣相으로 展開되어 왔다」고 直言한 바 있으나, 地域 및 家門의 局限된 一方性을 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사실이다. 學問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일곱 分派로 大分된다. 첫째, 金千鎰·崔慶會·高從厚; 둘째, 黃進, 金千鎰·崔慶會; 셋째, 梁山璠·金千鎰·崔慶會; 넷째, 金誠一·趙宗道·姜希悅 다섯째, 李魯·金誠一·趙宗道 여섯째, 郭再祐·金誠一·趙宗道; 일곱째, 金誠一·郭再祐·姜希悅 等이다.
- 이 가운데 첫째·둘째·셋째의 見解는 「後期三壯士」三字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다섯 및 여섯째 見解는 「前期三壯士」三字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넷째 및 일곱째 見解中 姜希悅만은 分明히 湖南사람인데 嶺南人으로 錯覺해서 誤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仔細한 것은 本文에 지적한 바 있다.

5) 與猶堂全書, 卷五, 景仁文化社 影印刊本, p. 507.

라 記述한다.

其後 申維翰이 이들 三壯士의 詩에 대해 敬意를 表明하고자 하는 뜻에서 「天地間에 큰 忠誠은 임금에 報答한 세 壯士요. 江山의 좋은 風景은 곧 그들 나그네가 머무는 한 높은 다락이네」⁶⁾라고 하여, 「三壯士」三字에 곧 金千鎰·崔慶會·黃進을 꼽고 있는 듯 하나 壬辰亂戰史나 日休堂詩史蹟에 의하면 :

「癸巳六月二十一日甲辰, 賊兵大至, 至壬子晦, 巡城將黃進, 中丸而死, 賊兵攔入城中, 於是金公千鎰·崔公慶會·高公從厚, 共登矗石樓, 口點詩曰: 矗石樓中三壯士云云, 三賢其赴江死」⁷⁾

라 記述한다.

이것은 時間的으로 推定해서 黃進이 이미 총탄에 몸을 등지고 난 이후에 金公·崔公, 高公 三賢에 의해서 作詩되었음이 分명한데, 丁若鏞은 高從厚를 黃進으로 誤記하여 引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뿐만 아니라 慶尙南道誌 十一編 二章에 의하면 松巖 李魯를 鶴峯 金誠一·大笑軒 趙宗道와 더불어 「世稱三壯士」로 記述하고 있으면서, 慶尙南道에서는 每年 晉州주관으로 해마다 음력 유월 그믐날에 市長에 의한 「三壯士」祭時 恒常 金千鎰·崔慶會·黃進을 모시는 理由가 무엇인지 的確히 알 수 없으나 아마 丁若鏞의 矗石樓事蹟의 要旨를 전적으로 眞意로 받아들여 듣고 그린 行事를 施行하는 듯하다. 丁若鏞이 三壯士詩의 作者나 또는 「三壯士」三字에 대한 根據를 仔細히 밝히지 않고 있음은 分明하나, 그의 考證學的 態度(學問의 權威)에서 보면 歷史를 매우 중시함을 우리는 잊볼 수 있고, 實學的 學問 態度에서 보면 「三壯士」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一說에 茶山이 矗石樓中을 矗石樓下로, 또 長江之水를 長江萬古로 한 것은 鶴峯 金誠一의 推敲文字를 그대로 引用한 것이 아닌가 하는 主張인데 이것을 時間上으로 推定해서 172年後의 所作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丁若鏞의 學問의 比重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數種의 詩句가 行世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學說이 前代 學者의 言行과 偶然히 一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以上 몇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丁若鏞의 인식착오에서 黃進은 高從厚의 誤記라고 보겠다. 「三壯士」三字를 적극적인 활동상황으로 보아 金千鎰, 崔慶會, 高從厚 諸先生을 추대하고 있음이 確實시 된다.

한편 事實撫錄에 의하면 :

「當其初到晉陽也, 城中寂無人影, 先生(即鶴峯 金誠一), 與趙宗道·郭再祐, 舉目山河,

6) 前掲書 申維翰書 矗石樓詩, 霧下實錄, 申維翰은 當代에 名聲을 떨친 文章家로서 이 矗石樓의 “天地報君三壯士” 一詩를 1712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此詩는 霧峯全書 卷下에도 所載되어 있다.

7) 前掲書.

「三壯士」三字 試評

不堪悲慟，宗道握先生手，曰晉陽巨鎮，牧使名官，而今若此，前頭事勢，更無可爲，不如適死爲得，願與公同沈此江，不必死於凶鋒，因自引去，先生笑曰，一死非難，從死何爲，匹夫之諒，吾不爲也，先王遺澤，尚未盡斬，而主上已下罪己之教，天心方有悔禍之崩，倘賴諸君倡義之助，得聞列邑多士之應，士爲民望，民何不從，然後分兵據要，以遏橫突，一方衣，足以興夏，恢復之功，不難辨也，如其不幸，張巡之死守，可也，果鄉之篤賊，亦可也，吾何遽也，有如此江，吾非畏死者，因詠一絕曰：蘆石樓中三壯士，一盃笑指長江水，清江萬古流滔滔，波不濁兮魂不死，相與揮淚，大慟而罷⁸⁾

라 記述하였는데, 이것은 崔暎이 撰述한 鶴峯言行錄을 根據로 郭再祐의 文集에도 同一한 見解를 取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至舟城郭再祐，以赴戰冠服來謁，先生與語大奇之，同行至晉，當其初到晉陽也⁹⁾

라 하였고, 同一한 論調로

「先生(郭再祐)，以赴戰冠服，迎謁于舟城，金公見而異文，與語益奇之，遂相許以死，同行至晉，時，趙宗道，亦自宜春來會城中，寂無人影，舉目山河，不堪悲慟，金公遂詠一絕云，蘆石樓中三壯士，一盃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濁兮魂不死，相與揮淚，大慟而罷¹⁰⁾」

라고 記述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세 가지 記錄은 모두 忘憂堂 郭再祐를 「三壯士」三字에 넣기 위한 文獻考證이 될 만 아니라, 三壯士詩의 作者가 鶴峯 金誠一先生이라는 別種의 文獻資料가 될 만하다. 그러나 鶴峯重刊集에 「三壯士」三字의 一人으로 誤記되었다고 생각하고 忘憂堂 郭再祐를 松巖 李魯로 訂正(鶴峯全集 影印刊本 p. 63) 하여 重刊集과 續集 그리고 諸附錄을 合編刊行케 한 사실이 있으니,¹¹⁾ 여기에도 崔暎이 어떻게 해서 松巖 李魯를 忘憂堂 郭再祐로 잘못 記述했는가라는 資料의 뒷받침은 전혀 없다. 一說에는 「時代的으로 봐서 元集을 發刊할 때 崔暎이 鶴峯言行錄을 撰述한지 35年이고. 崔暎이 作故한 지 이미 9年後의 일이라, 그의 後輩 金應祖 亦是 그의 先輩인 崔暎이 編纂한 것을 그대로 따라 忘憂堂 郭再祐를 「三壯士」三字의 一人으로 收錄하여 鈔梓했던 것¹²⁾」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그런데 鶴峯集詩論에도 엄연히 金誠一·趙宗道·郭再祐가 晉州三壯士로 分明히 記述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1726年 李裁에 의해 刊行된 鶴峯集年譜에는 鶴峯 金誠一이 大笑軒 趙宗道, 松巖 李魯와 더불어 눈은 들어 山河를 바라보며 비통을 견디지 못했다고 言及한 것은 筆者로 하여금 驚異的인 의아심을 갖게 한다. 무엇을 根據로 忘憂堂 郭再祐를 松巖 李魯로 바꾸어 記述했는지 도무지 알 道理가 없다. 이는 筆者로 하여금 표절문제로 말미암은 驚異보다

8) 郭再祐, 事實摭錄, 郭忘憂堂集, 紅衣將軍郭忘憂堂集選抄, p. 249.
9) 初齋集卷十三, 鶴峯言行錄, p. 58.
10) 郭忘憂堂集, 卷一, 郭再祐年譜, p. 5.
11) 「遺李魯往候天兵于西路仍牒體府」, 鶴峯全集 影印刊本, 成大 大東文化研究院刊, p. 293.
12) 蘆石樓中三壯士詩考證, 蘆石樓中三壯士追慕稷, p. 28, 29.

도 더욱 더 疑訝心을 갖게 한다.¹³⁾ 其後 眉叟 許穆이 撰述한 「李魯行狀」에서 「鶴峯이 처음으로 晉陽에 이르렀을 때 松巖 李魯와 大笑軒 趙宗道가 함께 따랐다」¹⁴⁾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文獻資料는 어디까지나 私家文獻資料이기 때문에 筆者로 하여금 驚異의 인 의문을 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歷史的인 文獻이 重要하다고 判斷하는 가장 유력한 點은 어디까지나 合理的으로 考證이 될 수 있는 「facts」가 核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느 西洋史를 전공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본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facts」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松巖 李魯를 「三壯士」三字의 一人으로 꼽는 文獻中 가장 신빙성이 있는 原初的 史料는 바로 朝鮮王朝實錄이라 하겠다.

「癸亥次對領議政金載瓚曰：丁酉晉州之戰，立僅最多，李魯即世所轟石三壯士之一也，請許加贈一秩，從之」¹⁵⁾

이는 1813年 癸亥日에 時任 領議政 海石 金載瓚이 純祖大王에게 直接 奏達한 글인데, 그 以後 四年 王은 晉州三壯士의 一人인 松巖 李魯에게 吏曹判書를 除授하였다고 傳한다. 뿐만 아니라 壬辰倭亂時 鶴峯 金誠一과 더불어 晉州城을 지킨 事實이 있었던 것¹⁶⁾으로 미루어 보아 松巖 李魯를 「三壯士」三字中의 一人으로 꼽기 위한 原初的인 考證資料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私家文獻考證을 通해서 松巖 李魯가 三壯士의 一人임을 推測할 수는 있으나, 과연 그들의 記錄이 아무 瑕疵 없는 原初的인 文獻考證이 될 것인지 判斷하기가 매우 어렵다.

從遊諸賢錄에 의하면：

公名魯，字汝唯，甲辰生，宜寧人。丁舍人燾，謫巨濟時就學焉。又遊守愚堂門，氣骨雄豪，言論激勵，人以氣節稱之。文名早盛，中進士晚登第，拜正言即遊。嘗爲此安縣，治績甚著。千

13) 「先生初到晉陽，牧使李敞，竄伏山谷，空城無人影，惟見江流沄沄，先生與趙宗道·李魯，擊目山河，不堪悲慟……蘆石樓中三壯士，一盃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瀾兮魂不死。」鶴峯集年譜，鶴峯全集 影印刊本，成大 大東文化研究院刊行本，p. 296. 이와 같이 年譜에 收錄된 「三壯士」三字가 詩編에 記載된 「三壯士」三字와 一致하지 않는 理由는，筆者 생각으로는 그 當時 學問研究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考證文獻이 稀少한 점도 重要한 原因이 되겠으나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學者들의 學問하는 氣風이 問題가 되지 않느냐 하는 素朴한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해서 學問을 研究하는데 「虛心遜志」한 做事的인 태도만 있었던들 그러한 혼란을 빚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推論하면 晉州史의 大家인 金和朝氏의 懷疑的인 態度에 筆者自身도 同感이 앞선다.

14) 「鶴峯之初到晉陽也，公與趙公從之，空城寥寥，絕無人影，惟見江水沄沄，徘徊瞻眺，滿目悽慘，公與趙公，握手謂鶴峯曰：晉陽巨鎮，牧使名宦，賊未入境，事已若此……」許穆撰，松岩行狀，松岩集 卷六，p. 8.

15) 朝鮮王朝實錄 卷四八，p. 45，癸亥日條，純祖大王實錄 卷十七.

16) 「丙戌因吏曹啓，命贈參判李魯，故副提學李惟弘，並贈正鄉，故徵士權尚吉，贈職，魯即壬辰倭亂與金誠一，同守晉州者也。」朝鮮王朝實錄 卷四，p. 123，丙戌日條.

「三壯士」三字 試評

辰之亂，與趙咸陽宗道，誓心討賊。時鶴峯金先生以招諭使到咸陽，二公不期而會，鶴峯喜甚，因留之幕下，同至晉陽，見城守不備，軍民未集，以為前頭事勢，便無下手地，欲與同沈於江，鶴峯以為死未晚，笑而止之，後人稱之謂蘆石樓中三壯士，有詩傳於世，後為都體察使李元翼參謀官多所謀畫，患瘧歲餘，終不起，自號松巖」¹⁷⁾

이라 記述한다.

윗 글중 「同至晉陽」은 成汝信이 松巖 李魯를 「三壯士」의 一人으로 꼽기 위한 一句인데, 이것은 崔暉이 忘憂堂 郭再祐를 三壯士의 一人으로 꼽기 위한 「同行至晉」¹⁸⁾과 對比해서 檢討해 볼 수 있겠다. 前者는 一說에 成汝信(1546~1632)이 崔暉(1562~1640)보다 17년 앞서 擧論한 것이라고 해서 보다 더 信憑性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理由로 해서 崔暉의 主張이 成汝信의 文集을 전혀 接했지 못했거나 涉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이다.

또 鈞隱集에 의하면 :

「還歸晉陽，與李公魯，同登蘆石樓……先生西望痛哭曰：生無益於主辱之日，死何忍於兇賊之鋒，執鶴峯手，將欲並投南江，鶴峯曰：道聽難信，行聞的報，死亦未晚，若畏死，有如此江，先生曰然，遂止，鶴峯詠詩曰：蘆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渴兮魂不死……後學西原韓夢參謹狀」¹⁹⁾

이라 記述하고 있고,

大笑軒先生事蹟集에 의하면 :

「不按聞嘗取鶴峯金先生蘆石樓詩，以觀之，其曰：蘆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蓋先生與，李公魯，同在鶴峯幕府，誓死討賊，詩以為志云……」²⁰⁾

이라 記錄되어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三壯士詩의 作者는 鶴峯 金誠一 先生이라는 點과 大笑軒 趙宗道와 松巖 李魯가 蘆石樓에 함께 올라 죽음을 각오하고 적을 무찌를 것을盟誓하는 의미에서 蘆石樓詩를 함께 읊은 사연이 엿보인다.

그리고 松巖集에 의하면 :

「鶴峯之初到晉陽也，公與趙公從之，空城寥寥，絕無人影，惟見江水沄沄，徘徊瞻眺，滿目悽慘，公與趙公，握手謂鶴峯曰……」²¹⁾

이라 記述한다.

여기서도 松巖 李魯를 晉州三壯士의 一人으로 꼽을 수 있는 私家文獻考證으로 우

17) 浮查集 卷六，從遊諸賢錄，李松巖條，p. 6.

18) 本註(9) 再引用.

19) 鈞隱集 卷三，大笑軒趙宗道行狀，p. 1.

20) 柳命天撰，大笑軒先生事蹟集，大笑軒先生文集序，p. 10.

21) 冒叟 許穆撰，松巖集 卷六，李魯行狀條，p. 8.

리는 볼 수 있다. 그후 1763年 一名 「記金鶴峯事蹟」이라는 龍蛇日記가 松巖 李魯에 의해 刊行되었는데 거기서는 함께 죽음을 작오하고 賊을 무찌르기 위한 誓死詩를 읊은 사연이 역력하다.

龍蛇日記에 의하면 :

「城中寥寥，江水茫茫，公徘徊惆悵，不堪悲惋，趙李二君，自宜至，握手謂公曰：晉陽巨鎮，牧使名宦，今若此前頭事勢，更無下地 不如過死，爲得願與令公同沈此水，不必死於兇鋒，執手引江，牢不可解，公笑曰：一死非脫徒死何爲，匹婦之諒，吾不爲也，先王遺澤，尚未盡斬，而主上已下罪己之教，天心方有恢復之萌，倘賴諸君倡義之助，得聆列邑，多士之應，士爲民望，民何不從，然後分兵據要，以遏橫突一旅，足以興夏恢復之功，不難辨也，如其不幸，張巡之死，於守可也，果卿之剛於置可也，諸君何遽也，儼所否者，有如此水，吾非畏死者，因相與揮淚，大慟而罷」²²⁾

라 記述하였고, 또 李象靖의 龍蛇日記 跋文에 의하면 :

「象靖每誦鶴峯先生蘆石樓中三壯士之句，未嘗不掩腕感歎，想慕其爲人」²³⁾

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이때부터 龍蛇日記가 松巖 李魯의 作이므로 그를 晉州三壯士의 一人으로 꼽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晉州三壯士가 그 누구라는 것은 분명치 않고 다만 三壯士詩가 鶴峯 金誠一의 所作임을 表明하고 있다. 그런데 最近 1977년 金麟煥이 私家文集의 虛實性を 지적하기 위하여, 「龍蛇日記金鶴峯事蹟論考」라는 제목의 論文과 「龍蛇日記辨記錄」이라는 論文을 發表한 바 있다.

鶴峯事蹟論考에 의하면 :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金誠一의 事蹟에 관한 것이다. 壬辰 當時 金誠一이 兵使로서 赴任途中에 亂離가 난 後 第一 키움으로 세운 勝戰事蹟은 龍蛇日記에서 송두리째 빼고 冒瀆記事란 여러 번 쓰고 있고, 둘째는 巡察使 金眸에 대한 記事인데 李魯는 私憾이 있다고 露骨의으로 宣稱하면서 捏造 記載하고 있다. 그 當時 招諭使였던 金誠一의 狀啓를 보면 金巡察使가 옳고, 郭大將이 一時的이나마 잘못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셋째는 忘憂堂 郭再祐大將의 事蹟을 訛傳하고 있다. 李魯 自己가 郭再祐의 妾父라고 밝히면서 郭再祐의 事蹟을 任意대로 添創하고 贊揚만은 하다가 끝내는 金誠一의 蘆石樓中三壯士詩의 記錄에서 郭再祐를 밀어내고 自己를 넣어 三壯士의 一人임을 提示하고 있다. 그是非를 究明해 보면 鶴峯集 初刊本 蘆石樓詩註에 三壯士는 趙宗道·郭再祐로 明記되어 있으며 그것은 아무 瑕疵도 發見할 수 없는 記錄이다. 金誠一의 長子 準氏와 從子 涌氏가 文集을 整理編修하였고, 侄婿이자 門人인 切齋 崔暉이 文集을 校正하였으며 그 後 仁祖二十七年 己丑에 印刊되었다. 李魯의 龍蛇日記에 記載된 三壯士記事는 捏造痕跡이 明白한데 이런 自記가 數百年 동안 사람들의 耳目을 속여 왔다. 아무리 學者들이라 할지라도 남의 글 內容이 이렇게 歪曲되었을 줄이야 알았겠는가」²⁴⁾

22) 李魯著, 龍蛇日記, 十八章, 金麟煥, 龍蛇日記辨記錄證憑文獻 p. 28. 嶺南倡義士들의 行蹟과 義兵將들의 分布, 活動狀況을 詳細하게 記載하여 오늘날 壬辰戰亂史研究에 重要な 資料가 되고 있다고 慶尙南道誌, 李魯欄에 明記되어 있다.

23) 龍蛇日記李象靖跋文, 龍蛇日記, p. 293.

24) 金麟煥, 龍蛇日記金鶴峯事蹟論考(1977).

「三壯士」三字 試評

라고 記述하고 있다.

以上에서 注目해야 할 몇 句節을 仔細히 검토해 보면, 첫째로 松巖 李魯가 결코 晉州城 三壯士의 一人이 될 수 없으며, 둘째 그들이 提示하는 文獻記錄을 마음대로 添削하여 捏造한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鶴峯 金誠一의 三壯士詩의 記錄에서 郭再祐를 밀어내고 自己를 넣어 晉州三壯士의 한 사람임을 보여 주고 있다」는 대목과, 松巖 李魯의 龍蛇日記에 記載된 三壯士記事는 捏造의 痕跡이 明白한데 이 日記가 數百年 동안 사람들의 耳目을 속여왔다」는 대목이 注目할 만하다. 말하자면 金麟煥이 鶴峯集 初刊本の 記事를 전적으로 確信하는 입장에서 松巖 李魯가 忘憂堂 郭再祐의 事蹟에 아무 根據도 없는 捏造된 記錄이라고 신랄하게 批判을 가렸고, 아울러 「三壯士」三字는 鶴峯集 初刊本에 記載된 趙宗道와 郭再祐로 看做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金誠一의 長子 準과 從子인 涌이 整理·編修하고 姪婿이자 그의 門人인 訶齋 崔暉이 校正을 하여 1649年 乙丑년에 正式으로 刊行되었음이 分明한데, 그 內容이 歪曲되고 誣構하며 捏造된 것은 오로지 三壯士詩에 郭再祐를 밀어내고 自己를 넣어 晉州 三壯士의 一人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晉州三壯士에 관한 記錄을 相當한 部分으로 誣構하고 있는 龍蛇日記 가운데 松巖 李魯를 포함시킨 「三壯士」三字가 李魯作이라는 文殊誌(異名同冊이 아닌 듯함)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記錄되어 있지 않으며, 鶴峯言行錄에는 郭再祐를 포함시켜 晉州三壯士라고 한 세 가지 文獻(日記·文殊誌·言行錄)을 상세하게 고증을 하고 史實을 연구하여 시끄러운 실마리를 푸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고 한 적이 있다.

「示諭爲三壯士堅碑，事承來不勝歎(中略)三壯士事蹟，鄙中傳聞，亦各有異(中略)但詩集註，既本於言行錄，而言行錄中以趙某李某言，則固亦不刊之筆(中略)竊聞兩家後人，未曾平心，反生競辨，不但往來之言，已非平日所望於二家者，況於二公遺文中，任自添削，輕試嘗評乎 日記中趙公諱二字，改作趙李二君而刪去註內，李君亦參約中六字，得錄中，吳天坡序下，下能詳其字音原其理，享長畏之意，竊爲二家惜之也。」²⁵⁾

要言해 보면 丹城·召南의 趙宗道 後孫들이 晉州의 城內에 三壯士記實碑를 세우겠다는 建議文을 받은 경북 虎溪書院側에서는 鶴峯 金誠一의 言行錄에 記錄된 「三壯士」三字를 金誠一·趙宗道·郭再祐 三人으로 指稱한 것이 매우 信憑性있는 글이라고 稱讚하고 오히려 李魯側과 龍蛇日記에 趙宗道의 이름 두 자 代身에 趙李二君으로 고친데 대하여 조성성 없는 일들이라고 힐책을 한 것은 松巖 李魯가 결코 晉州城三壯士가 될 수 없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嶺南三壯士辨에 의하면 :

「余記數十年前松巖李公魯，諸孫持先蹟以示曰：松巖先祖，即鶴峰金先生詩所稱三壯士之一(中略)今也持穿鑿謬亂之說，至於上聞又欲立祠則士論之 不與郭氏之欲 卞理勢固然，此余所以

25) 虎溪書院答迺文，趙大笑軒先生，李孫宅上，虎溪書院送。

始而信，中而疑，終焉漠然者也。夫郭公奇勳異蹟，固已天地轟一也矣，壯士之名，固不足爲有無。松巖與鶴峯，周旋共事，終始靡懈，其忠義之心，亦不多謂，於同時諸賢，雖靡壯士之稱(中略)豈以無實之名，爲榮哉，夫貌親之像者有毫髮之不相似，則便別人而孝子之心，已愀然不安，況言行之重豈？貌狀而已哉，然則壯士之稱，在郭氏卜之可，不卜亦可，在李氏所當，亦不其僞造，正其誤母使其先祖爲別人，而凡無以無實之名，累於松巖之賢也」²⁶⁾

라 記述하고 있다.

이를 要點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즉, 松巖 李魯의 後孫들이 그 祖上의 事蹟을 가지고 와서 바로 松巖先祖가 金誠一의 三壯士詩 가운데 一人이라고 하고 이를 임금에 까지 아뢰고²⁷⁾ 또 祠堂까지 세우려고 하는 데 대해, 郭再祐 後孫側은 이에 對抗하지 아니하고 그 眞實을 辨論하려고 하지 않는 毅然한 態度(筆者 註)에 當然한 일이라고 하고 실상에 없는 이름으로서 영화롭게 여기는 것은 마치 父母를 섬기는 者가 조금이라도 不孝하던 자식된 자는 늘 마음이 愀然해지고 편치 못한 것과 比喻해서 李公側의 誠實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筆者 註). 이런 의미에서 「壯士」라는 稱號가 郭公側에 있어서는 「然而然」이라도 좋고 「不然而不然」이라도 좋으나, 李公側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先祖로 하여금 단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실상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松巖의 어진 것에 累를 끼치지 않는 것이 곧 後孫들의 道理임을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松巖 李魯를 鶴峯 三壯士詩 가운데 「壯士」의 一人이 아님을 분명히 吐露하고 있다.

한편 忘憂堂 郭再祐側과 松巖 李魯側이 當時 慶尚道觀察使로 있었던 金相休에게 「三壯士」三字의 一人으로 꼽기 위한 訴狀이 提出되고 있을 무렵에 「後期三壯士」를爲 始해서 湖南方面 儒生들이 同時에 訴狀一鶴峯의 卒日을 根據로 한 「三壯士」의 定義는 반드시 矗石樓下 南江에 빠져 죽은 분에게 限해서 準用되는 稱號일 뿐 病死한 분은 該當될 수 없다—을 提出한 적이 있으나 郭·李公側의 訴狀보다 늦었기 때문에 官에서 湖南의 어진이가 옳다고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說이 있었다. 一說에는 慶尚道觀察使인 金相休는 一面은 鶴峯 金誠一側의 모든 主張을 全面 否定하고, 他面은 晋州三壯士가 同時 殉節한 壯士임을 確信하는 意味에서 「嶺南」이라는 두글자를 굳이 붙여 「嶺南三壯士辨」이라고 하였다는 主張이 있는데 이것은 文脈上 再熟考되어야 할 處로 믿는다. 오히려 金相休는 그 是非規定을 鶴峯 金誠一文集 初刊本의 內容을 眞實한 私家文獻資料로 看做하고 郭再祐側의 穩健한 態度에 同調하는 意圖에서 「嶺南三壯士辨」을 論辨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松巖 李魯를 一方의으로 批判하는 立場에 선 것은 바로 金相休가 鶴峯初刊集을 接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涉獵했던 것으로 看做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속에 「矗石樓詩의 原作者가 鶴峯先生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26) 金相休, 嶺南三壯士卜, 霽下集錄 卷下, p. 63.

27) 本註(15) 再引用.

「三壯士」三字 試評

湖南節義錄에 의하면 :

「我受國厚恩，任此方面，城存我存 城亡我亡，遂脫朝衣一襲 及茂朱戰所奪寶劍 畫軸，付姪弘宇，歸傳于仲兄曰：我兄聞我死，必繼起以此爲職，我死之後，以此衣舉葬，遂一向督戰，矢盡力窮與金公高公，共登城南譙樓 口占一絕詩，矗石樓中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持印滔，波不瀉兮魂不死，北向四拜曰：孤城受圍，外援不至，勢窮力迫，一死以報，手節，從容赴水而死」²⁸⁾

라 記述하고 있다.

그 내용을 仔細히 검토해 보면 「나라의 厚恩을 입고 晉州城을 맡았으니 城이 있어야 내가 있고 城이 없으면 自己도 없다는 道理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朝衣와 寶劍과 그럴 한 쪽을 조카인 弘宇편에 붙여 仲兄에게 전하면서 자기의 義로운 죽음을 仲兄에게 알리지 말라는 正義로운 마음으로 혼로 싸우다가 힘다져 다 하였다. 이 때 健齋 金千鎰과 隼峯 高從厚와 함께 矗石樓에 올라가 詩 한 수—矗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瀉兮魂不死—를 짓고 죽음으로 보답하겠나이다 하고 손에 兵使의 印綬를 쥐고 南江에 投身·殉節하였다」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三壯士詩의 作者는 분명 日休堂 崔慶會先生이고 健齋 金千鎰과 隼峯 高從厚 諸先生이 결국 「三壯士」三字임을 뒷받침해 주는 文獻의 考證이라 하겠으나 이런 歷史的 事實들이 時代順으로 봐서 다른 史實들과 얼마나 經過된 後에 나왔는가를 살펴 볼 때, 1799년 湖南節義錄의 刊行보다 약 153년이나 앞서 鶴峯集 初刊本이 刊行되었다는 事實이 매우 注目이 된다. 시대적으로 정확한 史料들로 看做한다면 鶴峯側을 「前期三壯士」라 하고 日休堂側을 「後期三壯士」라고 命名해 보고자 하는 것이 筆者의 拙見이다.

日休堂集에 의하면 :

「…與金公千鎰·高公從厚，共登矗石樓，吟詩曰：矗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瀉兮魂不死，北向四拜，投江而死」²⁹⁾

로 記述한다.

여기서도 崔慶會先生에 의해 三壯士詩가 由來했으며, 「三壯士」三字에 日休堂 崔公을 爲始해서 健齋 金千鎰·隼峯 高從厚 諸先生을 끄는 듯하다. 「吟詩」와 「口占一絕詩」를 對比해 볼 때 湖南節義錄에서 轉載한 것이 아닌가 史料된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

「矢盡力竭，外援不至，遂登城南譙樓，口占一絕曰：矗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瀉兮魂不死，與倡義使金千鎰·復讐義兵將高從厚，北向四拜，相率投江」³⁰⁾

28) 湖南節義錄 卷一, p. 32, 崔慶會編.

29) 承旨公派文獻錄, 崔慶會公事實.

30) 輿地圖書, 崔慶會編(1765) 그런데 1973年 影印刊行한 序文에서 「同一한 年代에 官邑의 收聚하는데 한층 史料的 價値가 있으므로 朝鮮八道の 地理·歷史의 沿革變遷은 勿論 당시의 行

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것은 湖南節義錄보다 약 34년 일찍 刊行된 것이지만 鶴峯集 初刊本에 比하면 역시 약 119년 後에 刊行된 史實임을 注目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的인 官纂書라는데 莫重한 比重이 있다. 여기에서도 日休堂 崔慶會가 健齋 金千鎰과 隼峯 高從厚와 목숨을 함께 하면서 臨死時 誓死詩를 即席에서 짓거나 읊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輿地圖書의 金誠一編에는 三壯士의 기록이 全然 없다는 사실이 注目할 만하다. 이 點은 崔慶會 作詩와 崔慶會·金千鎰·高從厚 三壯士論에 매우 有利한 史料가 된다고 하겠다.

또 烏城誌에 의하면 :

「……與金健齋千鎰，高隼峯從厚，登蘆石樓，誓死北拜，口占一絕詩，有曰：蘆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瀾兮魂不死，投南江而死」³¹⁾

라고 記述하고 있다.

여기도, 「口占一絕詩」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湖南節義錄으로부터 轉載한 것인 듯하다. 三壯士詩의 原作者는 日休堂 崔慶會先生으로 되어 있고 健齋 金公과 隼峯 高公도 뜻을 같이 하여 同所·同時 殉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日休堂 崔慶會先生이 英祖時 謚號를 받을 때 謚狀 속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金公·高公과 더불어 蘆石樓에 올라가서, 一絶의 詩를 지어 읊었는데 그 詩에 이르기를 「蘆石樓中三壯士, 一盃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瀾兮魂不死」라 하고 北쪽을 向해 再拜하고 이르기를 城은 적에게 둘러싸여 외로운데 援軍은 이르지 않고 軍勢도 다 하고 힘도 다하여 한번 죽음으로 報答한다 하고 一時에 江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城은 드디어 함락되고 말았다」³²⁾

文脈上 文字의 差異는 多少 있지만 時代의 으로 봐서 烏城誌나 湖南節義錄의 內容을 그대로 轉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773年 「後期三壯士」를 지지하는 湖南儒生들이 連署를 하여 晋州士林들에게 晋州三壯士는 「前期三壯士」가 아니라, 右義兵將 崔慶會·倡義使 金千鎰·復讐將 高從厚 諸先生의 「後期三壯士」라는 것이며, 三壯士詩는 어디까지나 崔慶會가 同所·同時 殉節當時 著作하였다는 通文을 다음과 같이 發送한 史料가 있다.

「右通諭事生等 嘗讀蘆石樓中三壯士，一盃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瀾兮魂不死之句，而未嘗不擊劍低昂，氣凜凜若秋，蓋三壯士即鄙道右義兵將崔忠毅公慶會，倡義使金文烈公千鎰，復讐將高孝烈公從厚，而此時乃崔公與二公，同日赴水時，所制也，播膾於當時，傳誦於

政·軍事·財政·經濟·交通 등의 組織과 機構를 瞭然하게 살필 수 있다」고 그 史料的 性格을 규정 짓고 있다.

31) 烏城誌 卷三, 崔慶會編.

32) 「(中略)與金公千鎰·高公從厚，登城南蘆樓 口占一絕曰：蘆石樓中三壯士，一盃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瀾兮魂不死，北面再拜曰：孤城受圍，外援不至，勢窮力迫，一死以報，一時赴江而死，城遂陷。」

「三壯士」三字 試評

後而世昭載其家之遺乘 布在諸賢之文集矣，今聞貴道 鶴峰金公·紅衣將軍郭公·奮義將姜公，三家子孫，乃以三壯士之稱，指長江之句，各歸乃先互相排攻 駭人聽聞 而且金氏家以此詩誤入其家之文集 又刻瀛石樓之題板，將欲講之，於貞珉云：惡是何言也…今我聖上賜祭 祭文中有口：魂兮不死，詩語乃吻 則詩乃崔公之詩 而前聖后聖皆所嘉³³⁾

要言하면 瀛石樓三壯士詩는 어디까지나 自己 祖上의 壯烈한 氣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矜持를 가지고 있는데 「前期三壯士」의 後孫(郭公側과 姜公側, 鶴峯側)들의 해괴한 行蹟(文集을 신는다든지 瀛石樓에다 현판은 것은 史實)을 일삼으니, 이는 言語道斷이라 一蹴하고 「後期三壯士」觀의 定礎가 賜祭에 의한 것이라고, 晉州士林들에게 널리 알린 바 있다. 이는 當時 「三壯士」에 대한 새로운 主張으로서, 鶴峯 金誠·紅衣將軍 趙愛堂 郭再祐·奮義將 姜希悅이 三壯士에 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 子孫들이 各己 自己 祖上들이 眞正한 「三壯士」三字라고 排擊攻迫한 史實을 우리는 잊을 수 있다. 여기에 姜希悅은 湖南 사람으로서, 鶴峯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인데 「前期三壯士」로 誤記한 理由가 매우 모호하다.

그 後 49年이 지난뒤 「後期三壯士」三字의 崔公·金公·高公이 嶺南監司에 呈文을 올린 史實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三壯士詩를 屢연히 崔慶會先生의 所作이며 崔公을 爲始해서 金千鑑·高從厚 諸先生의 「後期三壯士」가 晉州三壯士의 一員임을 밝히고 있다.

「…混眞則必辨其僞，爽實則終歸於正，此千百載公議之所在也，念昔晉州瀛石樓之詩 三壯士之號 混眞而爽實者久之，其在子孫之道 安得不辨僞而歸正也哉 盖三壯士，即湖南倡義使 贈領議政文烈公健齋金先生千鑑·湖南義兵將 慶尚右兵使都節制 贈左贊成忠毅公日休堂崔先生慶會·湖南復讐義兵將 贈吏曹判書孝烈公準峯高先生從厚，三賢是已，瀛石樓詩有曰：瀛石樓中三壯士，一杯笑指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波不竭兮魂不死，絕句即忠毅公崔先生所作，而崔先生與文烈公金先生，孝烈公高先生，共登瀛石樓，殉節時口，占一絕也…故湖儒更爲發逆，迫人於晉州，撥其搗版，碎其堅陣，禁其建祠，則東麓不攻自破矣。仄聞近者，舊符不復，又以金趙李爲三壯士，至於建祠，則忘慶堂郭再祐之後孫，又以爲其祖忘慶堂爲三壯士之一，而李松原不預云云，郭李兩家，爭語紛擊，至於上言，啓下衽云，郭李之爭，實變怪中一大變怪也 噫 推此觀之，則嶺南陋習，從可知矣(中略) 嶺儒以金鶴峯爲首，而誤以瀛石樓詩爲金鶴峯詩云 果如嶺儒所言，則諸賢文集及與地勝覽 承政院日記，歸之於誣妄，猶是細事，且千千萬萬 語不敢到之庭，詩語乃吻四字，乃是英廟朝賜祭文，則其將本置於何等之地耶³⁴⁾

張皇하지만 이 內容을 仔細히 살펴보면 眞實에 혼돈이 있으면 만드시 그 거짓을 밝혀야 하며,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면 만드시 옳게 바꾸는 것이 世所知의 公正한 議論이다. 「前期三壯士」三字에 대해서 그 이름이 혼돈되고 역사적 사실에 왜곡되어 오는데 어떤 그 子孫된 자는 바른 데로 돌아가지 않는가? 瀛石樓詩는 崔慶會의 所作이고 晉州三壯士는 金千鑑·崔慶會·高從厚 세 어른이다. 특히 「後期三壯士」를 만드는 湖南儒生들이 晉州士林에게 通文을 띄워 현판을 떼고, 세운 비석도 부수고 祠堂을 못 세

33) 露峯全書下, 霧下彙錄下, 通晉州文, p. 56.

34) 露峯全書, 霧下彙錄下, 呈嶺營文, p. 59.

우게 하였다. 한편 「前期三壯士」가 祠堂을 세우려 하자 같은 嶺南人 郭公이 이에 대항
 십지어 李公側에서는 임금께 아뢰는 行蹟까지 하여 결국 임금은 道內의 철저한 조사
 명령을 내렸으니 郭公·李公의 다툼이 실로 辯論中の 辯論이라고 하겠다. 만일 矗石樓詩
 가 鶴峯所作이라면 健齋集·日休堂集·隼峯集 그리고 輿地勝覽과 承政院日記는 한갓
 거짓으로 돌아갈 것이요, 英祖賜祭文에 詩語乃吻 즉 詩의 말이 곧 진정임이 간절하다
 라고 한 「네 글자」의 말은 누가 받을 것이냐고 反問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1741年 晉州三壯士는 모두 湖南人이라고 承政院日記³⁵⁾에 明記된 것을 뒷받침
 해서 「後期三壯士」인 健齋 金千鑑·隼峯 高從厚·日休堂 崔慶會 諸先生을 晉州三壯士
 로 꼽기 위한 文獻考證으로 看做할 수 있겠다.

日休堂詩의 事蹟에 의하면 :

「…三壯士, 乃崔公指己與金高兩公而謂也, 以二十九日同登矗石樓, 而投江故也, 武愍黃公尚
 不與焉, 則嶺南人之指詩爲金鶴峰作, 而偷名揭板, 指三壯士爲金趙李三人, 欲立碑於樓前者,
 果何有所據哉」³⁶⁾

라 記述하고 있다.

要言하면 三壯士는 본시 崔慶會本人과 金千鑑·高從厚 二公을 지격한 말이며(理由
 인 즉 矗石樓에 올라 뜻을 같이 하여 同時·同所 投江殉節한 까닭임), 黃進도 참여치
 못했는데 嶺南사람들이 三壯士詩의 作者가 金誠一이라고 이름을 도둑질하여 金公, 趙
 公·李公 三人이 晉州三壯士라고 하는 현판까지 걸었다고 하였으니, 「前期三壯士」가
 결코 晉州三壯士가 아님을 吐露한 史料 考證이 될 만하다. 다만 여기서도 誓死詩의
 原作者에 對한 言及이 없으나 事蹟의 內容이 곧 日休堂 崔慶會의 詩를 모은 것이므로
 三壯士詩 作者는 곧 崔慶會先生임을 斷定的으로 規定할 수 밖에 없다.

「後期三壯士」三字에 대한 史料는 以外 晉州三壯士를 矗石樓에서 致祭할 때 上林의
 위촉으로 祭官이 된 明湖 權雲煥의 祭文에서도 亦是 金千鑑·崔慶會·高從厚 三人을
 晉州三壯士로 看做하고 있고,³⁷⁾ 典故大方에도 亦是 「世稱三壯士」는 金千鑑·崔慶會·
 高從厚임을 밝히고 있으며,³⁸⁾ 韓國故事大典 亦是 金千鑑·崔慶會·高從厚를 「世稱
 三壯士」³⁹⁾라고 記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尹甲植編著인 韓國典故에도 亦是 健齋
 金千鑑, 日休堂 崔慶會, 隼峯 高從厚를 세상 사람들이 「三壯士」라고 부른다⁴⁰⁾고 記

35) 承政院日記, 英祖二十三年 丁卯 十月條:「元景夏曰: 鄉貢生者, 唐之歲貢孝廉之謂也, 與今
 之貢生異矣. 壬辰殉節, 盛稱晉州一新, 而晉州三壯士皆湖南人也, 一新七忠臣, 亦湖南人, 而近
 年以來, 凶荒發酷, 人物蕭條, 樓閣園林, 非復昔時之繁華矣.」

36) 霧峯全書, 霧下彙錄 卷下, p. 57, 日休堂詩事蹟.

37) 「后學權雲煥…敬告于三壯士健齋金先生·日休堂崔先生·隼峯高先生之靈」, 明湖集 卷三, p. 1.

38) 金千鑑(士重逸侶義使與子象乾, 殞于晉州, 居光州)·崔慶會(赴義殉于晉州, 居和順)·高從厚
 (霧峯敬命子, 文縣令, 殉晉州, 居光州) 以上 世稱三壯士, 典故大方 卷四, 義兵將事蹟, p. 38.

39) 韓國故事大典, 義兵將事蹟條, p. 793.

40) 尹甲植, 韓國典故, 義兵將事蹟條, p. 660.

述하고 있다.

「晋州三壯士」三字에 關한 主觀的 史料는 以上 言及한 것 以外에 一般的이고 通俗的인 것이 많지만 그 列擧를 省略한다. 以上에서 우리는 「三壯士」三字에 關한 文獻史料를 통해 三壯士詩의 作者와 蘆石樓三壯士가 그 누구인가를 검토해 보았다. 要言하면 「前期三壯士」에는 鶴峯先生集과 龍蛇日記를 根據로 詩作者는 鶴峯先生이고, 金誠一을 위시해서 趙宗道·郭再祐(혹은 金誠一·趙宗道·李魯) 諸先生을 蘆石樓三壯士로 꼽고 있고 「後期三壯士」三字에는 烏城誌와 湖南節義錄, 輿地圖書等の 文獻을 근거로 詩作者는 日休堂先生이고, 崔慶會를 爲始해서 高從厚, 金千鑑 諸先生을 晋州三壯士로 꼽고 있다. 특히 烏城誌와 輿地圖書는 官撰書라는데서 萬鈞의 比重이 있다. 더욱 三壯士 高從厚는 그의 父 高敬命 그의 兄 高因厚와함께 壬辰亂中 壯烈無比한 殉國을 한 護國의 英雄으로서 三忠 三高의 稱을 듣는 韓國史上 가장 빛난 忠節의 龜鑑으로 千秋에 流芳이 빛나고 있다. 이보다 더 偉大하고 이보다 더 壯絶한 萬古의 忠臣이 上下 千古에는 曠無했다.

2. 「三壯士」三字의 種類

지금까지 섭렵한 것을 基礎로 하여 「三壯士」三字의 種類를 主觀的인 立場에서 價値가 있는 間接的인 文獻資料를 근거로 해서 두 가지 根本的인 學說을 列擧하고자 한다.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아래 두 學說中 어느 立場을 一方的으로 두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史實과 史觀이 홀로 客觀的인 그것이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狀況들이기 때문에 過去와의 統一性을 期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어느 점은 「前期三壯士」三字의 장점이고 또 어느 점은 「後期三壯士」三字의 단점인지, 또 그 反對의 경우도 妥當性이 있음을 開陳하고자 한다.

「三壯士」三字는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嶺南·湖南의 兩大勢力이 主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于先 「蘆石樓三壯士」三字에 대한 「前期·後期三壯士」三字의 長期化된 論爭과 關係되는 資料를 紹介하면서 考察하고자 한다. 물론 이 兩大勢力의 論爭의 焦點은 蘆石樓三壯士詩의 原作者가 그 누구냐 하는 데서 起因된다. 上述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서로 相反되는 두 說이 있다. 하나는 蘆石樓三壯士詩는 鶴峯 金誠一이 지은 것이고, 忘憂堂 郭再祐·伯由 趙宗道 諸先生이 「三壯士」三字 속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蘆石樓三壯士詩(臨死時의 誓死詩)는 日休堂 崔慶會의 所作이며 健齋 金千鑑·隼峯 高從厚 諸先生이 「三壯士」三字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前者의 主張이 새로이 擧論된 까닭은 1773年에서 1833년 동안 약 60餘年 동안의 「後期三壯士」三字를 지지옹호하는 湖南儒生들에 의한 通文·呈文, 或은 嶺南三壯士辨 等の 치열한 爭議가 있었음이 記錄된 然後에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後期三壯士」三字의 最初의 論爭은 비록 「前期三壯士」三字의 原初의 主張이 擧論된지 약 141년 後의 일이지만, 다

음 몇 가지 부분은 首肯할 만하다.

첫째는 三壯士詩의 作詩背景이 同所·同時, 投江·殉節에 의한 詩意의 特徵을 前提로 한다면, 激烈하고 奮慨한 心情을 崔慶會先生 자신이 多分히 「詩」로써 象徴的인 表現을 했다는 點이다.

둘째는 南江得印時(약 1747년) 所持했던 崔慶會의 官印에 대해 英祖는 賜祭文을 通하여 「혼인들 어찌 죽을소냐」하는 詩의 말이 「眞實임이 간절하다」는 표현은 그 印章에 篆文의 자취가 남아 있고, 萬曆年號가 새겨져 있어서 그 印章을 日休堂 崔公이 所有했던 것을 確認하는 뜻에서 일 것이다. 이 點 承政院日記⁴¹⁾에서도 日休堂 崔公이 印信에 대한 內容을 把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印信이 日休堂 崔公이 蘆石樓에서 悲憤慷慨하여 殉死直前에 三壯士詩를 읊었고, 投江而死할 때 所持했던 그 印信임을 確認할 수 있었기 때문에 英祖는 彰烈祠를 致祭케 하고 祭文을 짓게 하며 日休堂 崔公 後孫에게 官職을 除授케 한 英祖의 大業으로 하여금 印信과 「三壯士」三字의 關係를 聯想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印信과 「三壯士」三字와 關係되는 史料는 烏城誌와 湖南節義錄, 그리고 烏城誌보다 仔細한 記錄을 하고 있는 英祖實錄 등이 있는데, 烏城誌에 있는 內容과 湖南節義錄에 있는 內容으로 보아서 印信과 「三壯士」三字와의 密接한 關係를 聯想하기에는 꽤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筆者의 所見이다. 왜냐하면 「英祖二十二年 丙寅에 晋州의 官僮(奴) 黃貴童이 公이 죽을 때에 갖고 있던 印信을 南江濱에서 건져 내어 帥臣이 이 事實을 稟聞하였다 임금께서 이 사실을 듣고 感歎하여 印銘을 짓고 銅을 만들어 闕을 세워 간직하게 하였다」⁴²⁾는 것과 「勢窮力迫, 一死以報, 手持印節, 從容赴水而死」⁴³⁾한 것은 日休堂 崔公의 높은 뜻—官印은 임금으로부터 所任받은 가장 으뜸가는 信票이므로 이것을 꼭 지닌 채 여러 義兵將과 同所·同時·投江·殉節한 愛國精神—을 다시 되새기는 意味다. 이에 따른 殉國精神을 確信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史料는 되겠지만, 이것으로서 「三壯士」三字와 밀접한 關係를 가졌다는 推測이라든지, 殉節直前에 三壯

41) 承政院日記 英祖二十三年 丁卯正月條에 보면 晋州城이 陷落되자 日休堂 崔公이 官印을 所有한 채 南江에 投身而死했는데, 바로 그 印信을 晋州의 한 官奴가 南江邊에서 拾得했다는 것이다. 殉節當時 水難되었던 그 印信이 百數十年後에 그 모습이 드러 났으니 여기에서 崔公의 悲憤慷慨한 心情을 聯想할 수 있겠다. 本文은 아래와 같다.

「丁卯正月二十六日 午時 上御歡慶殿(中略) 顯命曰：臣昨於賓廳聞矜惻之言，敢仰達矣 慶尚右兵使金偶得一古印其狀上透蓋昔壬辰之亂，本州城陷，其時兵使崔慶會懷印赴水而死，前冬本州官奴輩偶出江邊，手撈得之云，大凡忠臣烈士，用餘什物，雖如筆墨硯几之屬，猶爲之，愛慕不已，況此印信 其人殉節之時，同葬於魚腹者，而幾百年後，復出人間，其事誠可異矣，而其慷慨 冤憤之意，亦可以想見矣，宜有褒嘉悼感之典矣。上曰：狀啓則豫已覽之矣，兼春秋出去，持印以入致宅承命出。」

42) 烏城誌 卷之三, 崔慶會篇.

「英祖丙寅，晋州官僮黃貴童，獲公所抱印章南江，帥臣稟聞，上感歎，親製印銘，合製銅闕，立闕藏之。」

43) 前掲書, 湖南節義錄 崔慶會編.

「三壯士」三字 試評

上詩를 읊었다는 것을 類推하기에는 꽤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英祖實錄 가운데 임금의 親히 새긴 手冊의 銘文을 보면 그 信憑性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

「옛일을 생각하니 백년이 넘었도다. 僥倖히 南江에서 發見되었으니 印信의 篆文이 宛然하구나. 矗石樓義烈 想像컨데 슬픈 마음 앞서네. 嶺南의 兵營에 保全하여 忠義精神 북돋게 했어라」⁴⁴⁾

여기에 그 銘文中 特히 「矗石義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을 土臺로 해서 印信과 「三壯士」三字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同所・同時・投江・殉節 直前に 三壯士詩를 읊었다는 것도 쉽게 推測할 수 있겠다는 것이 筆者의 所見이다. 이런 意味에서 彰烈祠에 致祭하고 忠毅의 諡號를 下賜했으며 不祧廟를 命하게 된 動機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는 「嶺南三壯士」라고 稱한 가운데 난데없이 姜義將(姜希悅)을 「三壯士」三字로 꼽고, 그런 主張은 誤謬라고 言及하고 있으나 이는 아마 鶴峯, 金公과 깊은 關係가 있다는 錯覺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실로 그는 湖南사람으로서 鶴峯 金公과는 전연 關係가 없는 사람이다. 이는 아마도 伯山 趙公을 잘못 알고 誤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訥齋先生一代記에 「郭公과 趙公이 나란히 땅에 쓰러졌다」⁴⁵⁾는 單單한 記錄을 보더라도 充分한 立證이 될 것이다.

Ⅲ. 官의 「三壯士」三字觀

여기에서는 「後期三壯士」에 관한 公的으로 確固한 實像 몇 가지를 살피면서 여기에 덧붙이는 그 記錄의 眞實性을 適意檢討하고자 한다.

44) 英祖實錄 卷六十五, 英祖二十三年 丁卯 二月條.

「追憶往事百有餘年, 幸得南江印篆宛然, 矗石義烈想愴先, 命留頤同以堅忠孝.」

45) 崔東憲, 訥齋文集解題 p. 50, p. 51에 「三壯士」三字는 金誠一・郭再福・趙宗道인을 남기고 있고, 三壯士詩는 鶴峯作임을 다음과 같이 明示하고 있다.

「忘憂堂은 건 이야기를 중단하고 저림에서 詩 한 수가 격리 있는 순이를 꺼내서 訥齋에게 보이던기 다시 계속하였다. 『이 詩는 晉州城에 이르렀을 때에 牧使以下 모조리 달아나고, 城안이 마치 폐허처럼 되어 있을 때 鶴峯과 나(郭公)와 趙宗道 三人이 옥적루에 올라 갔었지요. 그때 伯由(趙宗道)가 『이런 관국에 예격과 기위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저 강물에 뛰어들어 죽자』라고 하였지.』 그때 鶴峯이 웃으면서 『伯由는 여자하던 죽음을 말하는네 죽음보다는 애적의 도망망을 예격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지』하고 詩 한 수를 써서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詩입니다.」

「趙公이 달려와서 대장은 달아나고 군대가 혼이졌으니, 城은 이미 陷落된 것과 같다. 지금 살아남은 자 그대(郭公)와 나(趙公) 둘 뿐이니 남자 한번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맹세하였으니 어찌 義로움을 저버릴소냐. 그러나 차자들은 죽는 것이 아무런 뜻이 없으니 城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고 하기에 郭公은 내뜻도 그러하다 하고 둘은 나란히 북쪽을 향해 두번 걷을 하였다……두 아들(郭公의 履常과 履厚)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두 공은 내연하게 손을 잡고 마지막 화살을 당겨 倭敵을 향해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이 탁쳐와서 번개처럼 칼을 번쩍하니, 郭公과 趙公이 나란히 땅에 쓰러졌다.」

「晉州三壯士」에는 「前期三壯士」 못지 않게 「後期三壯士」에 대해 官의 主動的인 推戴를 받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王朝實錄에 의하면 :

「英祖二十三, 丁卯十月, 湖南量田使元景夏復命, 上召見景, 夏曰: 臣下往湖南, 則改良始後於昨春, 故量事已了……牛疫大熾, 農牛盡斃, 明春將無耕作之望, 亦非細憂矣. 上曰: 此亦時氣乖常之致也, 卿之薦人多至十八人, 何以盡用乎, 景夏曰: 湖南古多名公巨卿, 晉州三壯士皆湖南人也. 一新七忠臣, 亦皆湖南人也. 臣採擇人望, 頃已疏陳, 而前已入薦, 除職者多, 除職或不仕者亦多, 仍歷舉諸人姓名及行誼曰: 十八人臣既以薦進, 自朝家甄用好矣」⁴⁶⁾

라 記述하고 있다.

要略해 보면 「임금께서 불러 보시니 景夏 아뢰기를 『臣이 湖南地方에 내려가본 즉 昨年 봄부터 田地를 다시 測量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지금은 이미 그 일이 끝이 났읍니다 (中略) 牛疫이 크게 번져 農牛가 모두 쓰러져 明春에는 將次 田地를 耕作할 可望이 없으니 이 또한 적은 걱정이 아닙니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이 또한 節氣가 怪常한 所致다. 卿이 薦擧한 사람이 十八名이나 되니 어찌 모두 登用할 수 있겠소.』 景夏 아뢰기를 『湖南에는 옛날부터 名公과 臣卿이 많았으니 晉州의 三壯士도 모두 湖南 사람이요, 一新(지금 南原)의 七忠臣도 또한 모두 湖南사람입니다. 臣이 德望있는 者를 선택하여 前번에 陳達하였는데 이미 薦擧에 들어 버슬에 除授된 자가 많고 或은 버슬에 除授하였으나 辭讓하고 나오지 않는 자도 또한 많았읍니다.』 仍하여 여러 사람이 姓名과 品行을 들어 말하기를 『十八人은 臣이 이미 薦擧했으니 朝廷에서는 登用함이 옳은 줄 압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湖南地方에 닥쳤던 天災之變을 巡察하고 돌아온 量田使 元景夏가 當地域의 여러 가지 固疾的인 問題와 政事에 參與할 人物을 登用하는 여러 意見에 대해 王에게 上奏하기를 『晉州三壯士는 모두 湖南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다음 몇 가지 文獻史料과 서로 排他되는 立場이 아니고, 總체적으로 봐서 상호 收斂되어 있고 信憑性있는 命題로 看做해야 할 것이다.

1. 晉州사람이 南江水에서 印信을 발견했으니 이는 壬辰倭亂時 兵使 崔慶會가 몸에 간직하고 南江水에 빠져 殉節한 바입니다.
2. 옛날 印章을 받아보니 그 當時 사람이 올린 듯하여 또 印章위에 새긴 萬曆年月을 보니 이 마음의 슬픔이 한결 더 하도다.
3. 옛일을 追憶하니 벌써 百餘年이 되었도다. 僥倖히 南江水에서 발견되었으니 印章의 篆文이 宛然하구나. 巖石樓三壯士의 義烈은 想像컨데 슬픈 마음 禁할 길 없네. 嶺南의 兵營에 忠義의 精神 북돋게 했어라.
4. 이 마음의 슬픔이 한결 더 하다는 것은 明나라가 壬亂時 倭賊을 물리쳐 우리 나라를 收復시키고 그 뒤에 淸나라에게 滅亡됨의 감회를 이룬 것이다.
5. 狀啓는 내가 이미 보았으니 兼春秋는 나가서 印信은 가지고 들어 오게 하라.

46) 英祖實錄, 英祖二十三年, 丁卯 十月條.

「三壯士」三字 試評

6. 崔兵使도 그 後孫이 있는가?

7. 崔兵使가 官印을 몸에 품고 南江水에 다다라 殉節한 일은 參考할 文蹟이 果然 있는가 顯命臣 아뢰기를 晉州日記(晉州邑誌의 錯誤인듯)에 실려 있습니다.(中略)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이 읊니다.

8. 印信을 받들고 들어 오는 것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슬프도다. 그 印信을 올리라.

9. 狀啓를 받아 보고 마음이 슬펐는데 이제 大臣의 陳達한 말을 듣고 옛 印信을 살펴보니 宛然히 그 사람이 올린 듯하여 感懷가 더욱 깊으며, 또 印信위에 새겨진 萬曆年月을 보며 옛날을 追憶하는 마음 한결 더 하다. 禮曹로 하여금 禮官을 보내어 彰烈祠에 致祭하게 하고 彰祭文을 또한 文臣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며 그 子孫은 吏曹로 하여금 登用하게 하라.

10. 印信은 工曹로 하여금 印匣을 精密히 만들어 그 속에 간직하였다가 禮官이 내려갈 때에 兵使에게 주어 兵營에 保存하게 하여 옛날 寶物을 永久히 遺傳하고 忠義의 節介를 後世에 본받게 하라.

以上은 官에서 認定하고 있는 「後期三壯士」에 대한 公的 記錄임은 周知하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三壯士誓死詩의 原作者가 崔日休堂先生임을 斷定지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前期三壯士」中 公的 記錄을 살펴보면 오로지 松巖 李魯가 「三壯士」三字에 들어갈 수 있는 根據를 朝鮮王朝實錄에서 立證한 것과, 그 다음 最近 1960年 12月 10日 字로 當時 文教長官으로부터 晉州三壯士에는 「後期三壯士」를 배제한 「前期三壯士」로서 鶴峯 金公을 爲始해서 大笑軒 趙公·松巖 李公을 「晉州三壯士」로 認定하고 蘆石樓三壯士詩는 鶴峯親作이라고 晉州에서 通文을 받은 적이 있으나, 여기에 가장 重要한 根據가 될만한 鶴峯集 初刊本이 現在까지 世上에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 「重刊本」만이 남아있는 것이 周知의 事實이기 때문에 筆者自身도 다만 訶齋文集을 土台로 「晉州三壯士」를 「前期三壯士」(金誠一·郭再祐·趙宗道)로 看做하고 그 蘆石樓詩의 原作者를 鶴峯 金公으로 上記한 바 있다. 「晉州三壯士」가 그 누구라는 問題는 결국 蘆石樓三壯士詩라든지 臨死時의 誓死詩라든지 莫論하고 그 原作者가 누구이냐는 것이 究明되어야 한다. 이 問題를 두고 볼 때 「後期三壯士」를 뒷받침하는 公的 記錄은 거의 疑問의 餘地를 찾아 볼 수 없으나, 「前期三壯士」를 뒷받침하는 私的 記錄은 특히 鶴峯集 初刊本이 現在까지 世上에 傳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鶴峯親作임을 究明할 確固한 資料가 稀少하므로 多少 疑問의 餘地가 된다. 말하자면 「筆者로 하여금 疑問의 所致가 되는 것은 「鶴峯初刊本」속에 과연 「蘆石樓詩는 鶴峯先生親作이다」하는 말이 明記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資料는 오로지 訶齋全集뿐인데 이 속에는 「晉州三壯士」에는 鶴峯 金公을 爲始해서 忘憂堂 郭公·伯由 趙公임을 仔細히 밝히고 있으나, 詩作者에 대해서는 그저 「金公이 지어……」하는 記錄이 唯一할 뿐 그 作詩때의 背景에 대해서는 言及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筆者는 上記한 史料들 가운데 公的인 命題들이 모두 한결같이 各己 史官들에 의한 敘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晉州三壯士」의 臨死時의 誓死詩는 日休堂 崔先生의 親作임이 거의 確實하겠으며 이문을 爲始해서 集峯 高先生·健齋 金先生인 「後期三壯士」를 「晉士三壯士」로 糾定하고자 한다.

Ⅳ. 結論：「三壯士」三字의 眞僞問題에 대한 筆者의 見解

먼저 매우 어색한 느낌을 갖게 하는 本考의 主題에 대해서 몇 마디 結論的으로言及해 두고자 한다. 本考의 本來의 意圖는 결코 「前期·後期三壯士」三字의 이른바 그 眞僞問題와 그의 저 論議가 많은 臺石樓三壯士詩 或은 臨死時의 誓死詩의 原作者 究明問題를 全面的으로 再檢討해 보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三壯士」三字에 관한 歷史的 事蹟文獻이 기타 史料나 史觀과 같은 그러한 起源問題·構成問題·價值問題·將來問題 등이 어느 程度 一目瞭然하게 整理 내지는 叙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A는 어디까지나 A이다」라든가, 「A가 아니면 B다」라고 하는 지나치게 形式的이면서도 同一的인 論理에 치우쳐져 있는 嶺·湖南間의 長期화된 論難이 그 一方性을 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三壯士」三字의 是非 問題의 發露가 始終一貫 包括的이고 受容的이며 또 收斂的인 態度에만 설 수 있다면 이 경우 「三壯士」三字에 비추어져 내려진 그 「主體精神」을 如何히 부연시킬 수 있는가를 獨自的인 觀點에서 叙述해 보려는 것이 本論述의 目的이면서 結論이 된다. 그러므로 「晋州三壯士」의 精神은 바로 「前期三壯士」와 「後期三壯士」의 對立을 止揚함과 동시에 이를 全般的으로 收斂하는 立場에 서지 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이들 두 「三壯士」三字를 對立시켜 어느 하나를 排除하는 排他的인 立場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綜合的으로 收斂하는 立場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筆者가 본 새로운 「三壯士」觀이다. 奇怪한 論辯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三壯士」三字는 數理上의 論理를 止揚한 「三壯士所以爲多壯士」라는 命題가 成立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三」이란 지금까지 嶺·湖南間의 長期화된 論難의 過程에서 말하면 결코 數理上의 數字를 指摘해서는 쉬이 解決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筆者는 「晋州三壯士」 가운데의 「三」을 一方的이고 特殊한 「三人」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三」이 바로 「三」 이상의 여러 사람을 낳게 한 根源 즉 母體로 看做하고자 할 따름이다. 勿論 이 「三」字는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는 三壯士 原作者에서 나온 數理上의 숫자이지만 그 對象은 어디까지나 「三指三人」이 아니고 「三指萬人」을 가리킨다는 것을 前提로 해야 될 것이다.⁴⁷⁾ 그러니까 「晋州三壯士」는 어떤 特定한 人物(前期三壯士 혹은 後期三壯士)만을 가리킨다고 斷言하기 보다는 그들을 전부

47) 清代의 저명한 考證學者 汪中的 「述學」에 의하면 「三」 또는 「九」는 特定한 數字上의 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多數」를 考證한 바 있다. 특히 詩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汪中の 「三」과 「九」字에 對한 考證原文은 아래와 같다.

「一奇二偶，一二不可以爲數，二乘一則爲三，故三者數之成也，積而至十則復歸於一，十不可以爲數，故九者數之終也。因而生人之措辭，凡一二之所不能盡者，則約之三以見其多，三之所不能盡者，則約之九以見其極多。此言語之虛數也，實數可稽也，虛數不可執也。」汪中，述學內篇，釋三九上編，p. 2.

「三壯士」三字 試評

포함한 뜻있는 여러 壯士들을 類推해서 일 것이다. 日休堂 崔慶會·健齋 金千鑑·隼峯 高從厚가 北向再拜하고 壯烈한 玉碎를 斷行할 때 壯士는 이 외에도 文弘獻, 梁山璣, 金象乾 등의 壯士들이 같이 散華했다. 金千鑑은 그 子 象乾과 서로 부둥켜 안고 投江했다. 그러므로 三壯士는 이 모두를 指稱하는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그렇다면 「三壯士」의 原作者가 어찌서 「三」以外的 숫자는 言及하지 않고 유독 「三」字만을 固守했는가 라는 물음도 成立될 것이다. 이 問題는 詩 속에 빈번히 나타나는 숫자의 概念이 대개 具體인 그 누구를 指摘한 것이 아니고 象徴의이면서도 추상적인 表現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詩」의 核心이요 그 生命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숫자의 把握은 主觀에서 始作해서 主觀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特記할 만한 共感意識이 있다면 「三」字는 「三」以外的 숫자는 물론 그 以外 모든 사물까지도 內包하고 있음을 우리는 注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三壯士」三字의 고질적인 問題를 원만히 認識 乃至는 理解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先賢들의 말씀은 모두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問題는 「三壯士」三字가 그 누구이며 臨死時 誓死詩의 作者는 그 누구인가를 檢討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先賢들의 遺蹟 및 그 사람됨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더욱 더 重要한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先賢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는 虛心遜志한 態度가 아닌가 사료된다. 換言하면 「三壯士」三字에는 여러 先賢들의 精神이 相互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恒常 그 子孫된 분이나 先賢의 遺學을 研究하는 분의 마음에 비추어져 내리고 있다고 前提해 볼 때 우리는 謙虛한 마음과 恭遜한 志向의 태도로써 先賢들의 遺德을 높이 保存崇尚을 하고 아울러 그들이 남긴 정신 속에서 先賢의 爲人과 그 爲業을 追究 내지는 研究하는 것이 바로 先賢들에 대한 眞實로 참다운 曉知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써 先賢들의 遺德은 한결 더 길이 빛날 것이다.